

잉크테크, OLED용 전자잉크 개발

삼성전자 · 제일모직과 공동으로 ... 대화면 OLED 사업화 장애 해소

5월 차세대 신소재인 투명전자잉크를 개발하면서 전자태그(RFID) 사업 추진을 발표한 잉크테크가 전자잉크의 또 다른 분야인 OLED(유기발광 다이오드)용 잉크젯 잉크 개발에 나섰다.

잉크테크는 산업자원부의 <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>에서 2005년 10대 전략부품소재의 하나인 <OLED용 핵심소재 및 부품 개발> 과제를 수요기업인 삼성전자 및 제일모직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7월26일 발표했다.

잉크젯 인쇄가 가능한 OLED(유기발광다이오드)용 인광재료 및 잉크 개발이 목표로, 잉크테크는 잉크젯용 청색 인광재료 및 잉크 개발을 수행하게 된다.

잉크테크가 개발을 추진중인 OLED용 청색 인광잉크는 세계적으로 아직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기술로 대화면 OLED 상업화의 직접적인 장애로 지적되고 있다.

잉크테크는 향후 5년간 정부출연금과 자체자금을 포함 약 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방침이다.

잉크테크 정광춘 사장은 “향후 디스플레이의 판도를 바꿀 대화면 OLED용 청색잉크의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 원천특허 및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며, OLED 잉크분야 핵심기술 선점으로 전자재료 사업부문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05/07/27>